

로마교의 도덕신학

- 그 형이상학적 근거를
희랍철학에서 찾아 보고자 하면서 -

이 보 민 교수
< Th. D >

I. 본격적인 로마 천주교의 도덕신학은 토마스·아퀴나스에게 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실, 토마스 이전의 스킨 철학자들은 그들의 학문 체계속에서 도덕 신학의 요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창조, 타락, 성육신, 성례등의 이론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후에 토마스·아퀴나스, 보나벤투라, 할레스의 알렉산더들이 좀더 분명히 도덕, 윤리에 관한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의 이론도 전체적으로는 신학이라는 이름 하나만을 지닐 그런 성격의 것이지만 그 속에 도덕에 해당하는 것이 좀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들면,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대전(神學大典)은 전체적으로는 신학이라고 칭하겠으나, 사실은 3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첫째 부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부분은 피조물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창조주를 향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부분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전술한대로 이 세 부분은 모여서 하나의 신학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제 2부분은 좀더 도덕에 관한 부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즉 여기서 인간의 도덕성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 2부 중에서도 첫 소부분에서 토마스·아퀴나스는 도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문제인 인생의 목적, 의지의 자유, 고통, 기본적행위, 일반적인 덕, 죄, 법과 은혜를 극히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말하고, 같은 제 2부

의 두번째 소부분에서 그는 특수한 도덕을 취급하는데 희랍시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덕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

희랍적인 덕을 취급함에 있어서 토마스·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을 받아들인데 그것은 우선 인간의 도덕 생활에서 인간의 자연적 이성, 혹은 창조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래 심겨준 인간의 능력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물론 토마스·아퀴나스가 궁극적으로는 교회적 전통에 따른 기독교적인 또는 신적인 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보다 중시하지만 그래도 희랍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기초 위에서 그의 도덕적 이론을 전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전통이 토마스·아퀴나스에게 전달되어 천주교의 도덕 신학은 본래 무엇이 좋은 습관인가를 중시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으로서의 덕(Virtue)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인간의 윤리도덕생활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단정짓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이 행복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를 육신적인 행복인 몸의 건강과 비교하여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몸의 건강이 절도있는 중용의 생활에서 유지되는 것처럼 정신의 행복 역시 정신적인 중용의 생활에서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육신의 건강을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것은 중용의 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된 상태인 것처럼 영혼의 건강인 행복도 인간의 정신 생활에서의 중용적인 선한행위가 습관이 되었을 때 가장 잘 유지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정신적인 습관이 곧 덕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의하는 덕이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덕이고 좀더 구체적인 덕으로서의 군인에게서의 용맹과 명예 시민에게 있어서의 경제와 복지등이 있다.

토마스·아퀴나스 역시 이런 희랍적인 기초 위에서 신학적인 덕을 개발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이상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첨가한 것으로 보아서 무방하다. 요컨대 토마스가 개발한 신자의 덕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어떤 습관에 관한 것이므로 그런 습관이 습관으로서의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혹은 죄냐 아니냐로 다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런 습관으로서의 덕이 실제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의 형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며 또한 특별한 경우에 그것

이 죄가 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되지가 못한다.

이상과 같이 회람철학과 로마교 도덕신학을 관련 시켰는데, 사실 회람 철학에서의 윤리학이란 덕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말해 볼 때에 존재에 관한 이론인 형이상학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겠다. 도대체 회람철학에서 어떻게 그런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선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덕과 습관의 윤리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로마교 윤리의 본질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며, 그에 따라 줄고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윤리학이 형이상학적 연구에 근거함을 회람철학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Ⅱ. 회람철학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에서 윤리학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두말할것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부터 유래된 것인데 즉 물리학 다음에 쓴 meta-physic 인데 그의 철학은 plato의 철학 및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관계된다. Socrates의 주장은 Sophist들에 反對하여 행하는 주장이었다. Sophist들은 Gorgias의 말 처럼 진리를 인정치 않는 것이었다. 즉 불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진리는 없다. ②있어도 알 수 없다. ③알아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변가들의 주장은 그런 소위 진리라는 것은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고 내게만 해당되는 요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진리를 냉소적으로 보는 것은 소크라테스 이전적인 학문이 추구한바의 진리라는 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것에 대해 불만이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동일적 원리라는 것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전체주의적인 대국가에 의해 약용되므로 오히려 민중들에게 불행을 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진리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요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곧 즐거움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요령에 따라 살때에 도덕의 문란함이 심해지고 마침 그런 요령주의가 당시의 도시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직접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유익만을 위하도록 만들었다. 그때에 인간의 도덕생활과 국가의 의미가 도진 받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비도덕적 생활을 개탄하면서 그원인은 바로 인간자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부끄러운 자신임을 모른다는데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인간자신이 안다는 것은 부족하고 또 안다고 해도 아는 것 처

럼 보일 뿐임을 바로 알아 자기 자신 의미 때까지의 지식을 우습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여기서 소위 Socrates의 Ironie 라는 개념이 나왔음)

그러나 Sophist들의 영향은 상존했으니 어쨌든 모든 실재한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즉 “나는 나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결상이다”하고 실재성을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실재이나 아니면 환상이냐? 내가 나 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냐? 지금 내가 나로서 있지만 얼마후에 죽으면 나는 더이상 내가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가? 책상도 불에 태워 버리면 없어지지 않는가? 동등의 질문이 계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내가 나 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무엇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나 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책상이다” 에서 Sophist는 이것이 책상이 아니고 결상이라는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책상”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Sophist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책상이다”에서의 “임”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즉 “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재이나? “임”의 실재성을 부인 할때에 그것을 배격 한다는 일은 사실 대단히 난처한 것이었다. 그래서 Plato가 도입하는 것이 Idea 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결국 절대적인 “임” 즉 존재인 것이다. 내가 나 “임”, 이것이 책상 “임”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있는 동안 만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나 이고 이것이 책상일 수 있는 것은 그 “임”을 바쳐줄, “임”에 대해 근거가 되어질 절대적인 “임”이라는 것이 있으므로이다. 이것은 책상 임도 아니고 나 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임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Idea 인데, 그것은 필요에 의해 도입이 된 것일 뿐이다. 다른 모든것에 대해서 이 절대적 “임” (존재) 그 자체가 기초가 되어춤으로 사물의 사물임은 환상이 아니고 실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것을 도대체 아는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인간인데, 아무도 알 수 없고 추구할 수 없는 Idea 를 추구한다는 인간은

그는 분명히 이 신적인, Idea적인 요소에 의해 기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속에 바로 그 Idea의 요소가 주입되어 있다는 것이다.(그것은 곧 인간의 영혼으로서 그러니까 Idea가 정적으로 모든 존재의 기초라고만 말할때는, 그것은 Eidos로 쓰이고 그것이 인간속에서 동적인 요소도까지 나타난다고 할 때 Idea쓰임) 영혼이 지성으로서 Idea를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심리학적 문제요 인식론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Plato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존재론에서 나누어져서 독립적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성으로서의 영혼이 절대적인 “임”이라고 하는 Idea를 실제로 추구해서 거기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영혼이, 즉 비교적 나 “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Idea를 추구함에 있어서 항상 ~아님이라는 것에 방해를 받아서 계속 추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절대적인 “임”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사람도 아님”, “책상도 아님”,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Idea가 추구가 안되는 것이다. 그럴때 안타까운 것이 되겠으나 후기 Plato에서는 나의 나임이라는 것은 내가 나 아닌자가 아님이라는 것이다. 즉 아님(non-being)에 의해 끝없이 도전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오히려 나 “임”이 ~이 아님과 조화속에 있음을 깨달음으로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의 Idea에 대한 추구는 곧 즐거움에 연결되며, 이렇게 지성의 Idea에 대한 추구는 추구에 있어서 non-being과의 조화속에 있으므로 인해 즐거움에 이른다는 것인데, 따라서 지성의 활동이란 마침내 즐거움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의 활동에 관계된 학문인 심리학은 즐거움과 관계되는 윤리학과 결부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인 활동의 중점을 즐거움으로 삼는것은 결국 Sophist들이 진리를 배격한 결과가 즐거움이라고 호소하는데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Plato의 학문의 기본 동기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무지의 결과가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Idea를 추구하는 진정한 학문의 최종의 결과는 더욱 더 지속적이고 더욱 모두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럼 보일 뿐임을 바로 알아 자기 자신 의미 때까지의 지식을 우습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여기서 소위 Socrates의 Ironie라는 개념이 나왔음)

그러나 Sophist들의 영향은 상존했으니 어쨌던 모든 실재한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즉 “나는 나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결상이다”하고 실재성을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내가 나 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냐? 지금 내가 나로서 있지만 얼마후에 죽으면 나는 더이상 내가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가? 책상도 불에 태워 버리면 없어지지 않는가? 동등의 질문이 계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내가 나 라는 것이 어쨌던 내가,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무엇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나 이라는 것이 실재가 아니고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책상이다”에서 Sophist는 이것이 책상이 아니고 결상이라는 식으로 생각함으로 “책상”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Sophist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책상이다”에서의 “임”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즉 “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재이냐? “임”의 실재성을 부인 할때에 그것을 배격 한다는 일은 사실 대단히 난처한 것이었다. 그래서 Plato가 도입하는 것이 Idea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결국 절대적인 “임” 즉 존재인 것이다. 내가 나 “임”, 이것이 책상 “임”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있는 동안 만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나 이고 이것이 책상일 수 있는 것은 그 “임”을 바쳐줄, “임”에 대해 근거가 되어질 절대적인 “임”이라는 것이 있으므로이다. 이것은 책상 임도 아니고 나 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임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Idea인데, 그것은 필요에 의해 도입이 된 것일 뿐이다. 다른 모든것에 대해서 이 절대적 “임”(존재) 그 자체가 기초가 되어줌으로 사물의 사물임은 환상이 아니고 실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것을 도대체 아는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인간인데, 아무도 알 수 없고 추구할 수 없는 Idea를 추구한다는 인간은

그는 분명히 이 신적인, Idea적인 요소에 의해 기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속에 바로 그 Idea의 요소가 주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영혼으로서 그러니까 Idea가 정적으로 모든 존재의 기초라고만 말할 때는, 그것은 Eidos로 쓰이고 그것이 인간속에서 동적인 요소도까지 나타난다고 할 때 Idea쓰임) 영혼이 지성으로서 Idea를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심리학적인 문제요 인식론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Plato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존재론에서 나누어져서 독립적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성으로서의 영혼이 절대적인 “임”이라고 하는 Idea를 실제로 추구해서 거기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영혼이, 즉 비교적 나 “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Idea를 추구함에 있어서 항상 ~아님이라는 것에 방해를 받아서 계속 추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절대적인 “임”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사람도 아님”, “책상도 아님”,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Idea가 추구가 안되는 것이다. 그럴때 안타까운 것이 되겠으나 후기 Plato에서는 나의 나임이라는 것은 내가 나 아닌자가 아님이라는 것이다. 즉 아님 (non-being)에 의해 끝없이 도전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오히려 나 “임”이 ~이 아님과 조화속에 있음을 깨달음으로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의 Idea에 대한 추구는 곧 즐거움에 연결되며, 이렇게 지성의 Idea에 대한 추구는 추구에 있어서 non-being과의 조화속에 있으므로 인해 즐거움에 이른다는 것인데, 따라서 지성의 활동이란 마침내 즐거움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의 활동에 관계된 학문인 심리학은 즐거움과 관계되는 윤리학과 결부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인 활동의 종점을 즐거움으로 삼는것은 결국 Sophist들이 진리를 배격한 결과가 즐거움이라고 호소하는데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Plato의 학문의 기본 동기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무지의 결과가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Idea를 추구하는 진정한 학문의 최종의 결과는 더욱 더 지속적이고 더욱 모두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는 위에서 말한 궤변가들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Plato만큼 존재 그 자체인 Idea라고 하는 것을 이론에 필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임”이라고 하는것이 절대적으로 추구될 수도 없으며 사물에서부터 독립되어진 그러한 절대적인 “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되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보다는 좀 더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그에게 많았다. 즉 사물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는가의 문제인 사물의 운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말이 결코 Plato적인 형이상학적 관심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전적으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런 형이상학적 연구가 물질운동의 연구와 결부가 되어 많이 상대화 되었다는 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Plato 때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때는 더이상 Sophist들을 대항해야 한다는 뼈저린 이유가 많이 약화되었으므로 학문활동이 하나의 방향에서 통일되는 것보다 학문들의 영역속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면서도 비교적 독립된 학문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진행되었다.

우선 그의 학문은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가진다. 이것은 주로 물질 운동을 서술하는 학문인데 그러나 그런 운동과 변화들은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과 질서와 원인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유때문에 들리학은 물리학으로만 끝날수는 없었다. 사물의 운동에 대한 학문은 당시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런 종류의 학문만으로는 학문을 참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학문적 만족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와 같은 나타나는 현상적인 운동이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며 어떠한 질서와 법칙에 따르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물리학 뒤에 쓴 형이상학 (Metaphysic)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금 Plato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학문적 관심인 Idea에 대한 추구하고 비슷한 양상의 연구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것은 모든 사물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있는 절대적인 “임”이라고 하는 그런것이 아니다. 전술한대로 Sophist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종류의

절대적 존재를 그의 이론에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런 Plato 가 추구했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물과 더불어 있으므로 “—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사물+임”의 형태로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사물적 존재가 한결같은 방법으로 “사물+임”의 모습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물은 그것이 “—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것의 사물성에서 더 큰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겠고 어떤 사물은 그것의 사물성보다 이미 그것이 “—임” 또는 “—이심”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가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볼 때 자연적인 형태로 있는 돌이라고 하는 사물은 그것이 이미 돌 “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돌은 돌의 사물성 때문에 의의가 있다. 즉 그들의 사물성 때문에, 즉 장차 그들이 다른 조각품 또는 건축물들이 되어져서 앞으로 더 고상한 것 “임”으로 나타나기 위한 어떤 잠재적 능력 (Potentiality)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이미 왕이 되신 사람은, 그가 이미 왕 “이심”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에게 있어서의 사물성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가 지닌 사물성이란 흠은 몸이 될 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잠재력으로 나타나겠는가? 그 보다는 그가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시켜서 그가 이제 왕 “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물은 그것의 사물성이 더 부각이 되며 그로 인해 그 사물성과 더불어 있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데 반해 또 다른 종류의 사물은 그가 지닌 사물성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비해 그에 있어서의 “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뜻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資料 (Matter)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사물성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또한 그가 말하는 형상 (Form)이란 바로 사물에 나타나는 “—임”인 것이다. 즉 모든 사물은 큰 존재의 사닥다리 (The Scale of Being)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닥다리의 하부 즉 遞次元적인 위치에 나타나는 사물일수록 matter의 요소, 즉 사물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사닥다리

의 상부에 위치한 것일수록 형상의 요소, 즉 “—임”의 요소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Matter란 잠재력 (Potentiality)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더욱 고상한 Form를 이루는데 동원 될 수도 있으므로 사물이란 어느 정도 존재 사닥다리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러한 약간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물의 변화 또는 운동이 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사물의 운동이나 변화들은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나 그것은 존재의 사닥다리의 구조에 따른 즉 어떤 질서와 원인과 목적에 따른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었다.

그러나 Plato 에 있어서의 경우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이와같은 형이상학적인 존재 구조를 인식한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으로서 그 영혼은 Plato에서와 같이 Idea적인 “임”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 “임”이라고 할 Form은 인간에 있어서는 영혼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에는 단지 낮은 차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동물에게는 감각의 형태로만 나타날 뿐이고 인간에게는 감각뿐 아니라 지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바로 그 지성이 존재구조를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바를 지성이 지각하는데 그것은 곧 지성이 감각을 Control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영혼의 움직임과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심리학 또는 인식론이 되는 것인데 이 심리학은 그러니까 그의 형이상학과 어떤 관계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지성이 인간영혼의 주가되는 기능으로서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존재 구조를 지각하는데, 그 때에 그지성으로 하여금 계속 존재 구조를 지각하게 하는 것은 의욕 (Desire)이라는 것이다. 이 의욕이란 결국 지성이 존재구조를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 의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성이 지각하므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지성이 존재 구조를 바로 지각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곧 의욕이 되는 것인데 또 한편 이런 즐거움에 따른 의욕이 지성으로 하여금 지각하게 하므로 지성과 의욕은 상호 보완적인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진

절대적 존재를 그의 이론에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런 Plato 가 추구했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물과 더불어 있으므로 “—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사물+임”의 형태로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사물적 존재가 한결같은 방법으로 “사물+임”의 모습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물은 그것이 “—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것의 사물성에서 더 큰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겠고 어떤 사물은 그것의 사물성보다 이미 그것이 “—임” 또는 “—이심”이라는데서 더 큰 의미가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볼 때 자연적인 형태로 있는 돌이라고 하는 사물은 그것이 이미 돌 “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돌은 돌의 사물성 때문에 의의가 있다. 즉 그 돌의 사물성 때문에, 즉 장차 그돌이 다른 조각품 또는 건축물들이 되어져서 앞으로 더 고상한 것 “임”으로 나타나기 위한 어떤 잠재적 능력 (Potentiality)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이미 왕이되신 사람은, 그가 이미 왕 “이심”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에게 있어서의 사물성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가 지닌 사물성이란 늙은 몸이 될 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잠재력으로 나타나겠는가? 그보다는 그가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시켜서 그가 이제 왕 “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물은 그것의 사물성이 더 부각이 되며 그로 인해 그 사물성과 더불어 있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데 반해 또 다른 종류의 사물은 그가 지닌 사물성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비해 그에 있어서의 “임”이라고 하는것은 상대적으로 큰 뜻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資料 (Matter)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사물성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또한 그가 말하는 형상 (Form)이란 바로 사물에 나타나는 “—임”인 것이다. 즉 모든 사물은 큰 존재의 사다다리 (The Scale of Being)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다다리의 하부 즉 遞次元적인 위치에 나타나는 사물일수록 matter의 요소, 즉 사물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사다다리

의 상부에 위치한 것일수록 형상의 요소, 즉 “—임”의 요소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Matter란 잠재력 (Potentiality)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더욱 고상한 Form을 이루는데 동원 될 수도 있으므로 사물이란 어느 정도 존재 사다다리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러나 약간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물의 변화 또는 운동이 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사물의 운동이나 변화들은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나 그것은 존재의 사다다리의 구조에 따른 즉 어떤 질서와 원인과 목적에 따른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었다.

그러나 Plato에 있어서의 경우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이와같은 형이상학적인 존재 구조를 인식한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으로서 그 영혼은 Plato에서와 같이 Idea적인 “임”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 “임”이라고 할 Form은 인간에 있어서는 영혼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에는 단지 낮은 차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동물에게는 감각의 형태로만 나타날 뿐이고 인간에게는 감각뿐 아니라 지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바로 그 지성이 존재구조를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바를 지성이 지각하는데 그것은 곧 지성이 감각을 Control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영혼의 움직임과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심리학 또는 인식론이 되는 것인데 이 심리학은 그러니까 그의 형이상학과 어떤 관계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지성이 인간영혼의 주가되는 기능으로서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존재 구조를 지각하는데, 그 때에 그지성으로 하여금 계속 존재 구조를 지각하게 하는것은 의욕 (Desire)이라는 것이다. 이 의욕이란 결국 지성이 존재구조를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 의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성이 지각하므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지성이 존재 구조를 바로 지각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곧 의욕이 되는 것인데 또 한편 이런 즐거움에 따른 의욕이 지성으로 하여금 지각하게 하므로 지성과 의욕은 상호 보완적인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겠다.

지성이 존재구조를 바로 지각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인간영혼이 지각을 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감각적, 지각적 심리운동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일어난다고 하겠으며 바로 그 행복과 그곳에 이르는 바에 관계된 연구를 행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윤리학이 되는 것이다. 그의 윤리학이란 존재구조의 연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형이상학의 기초위에 된 것이라고 하겠다. Plato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성적인 참된 연구가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을 향한다는 것은 Sophist적인 잘못된 행복, 즉 무지에서 온다는 즐거움을 배격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인간의 행동이 어떠한 때 진정으로 행복해 지는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즐거움으로 향할 수 있는 행동들은 존재 구조를 파악하는 지성적인 지각에 근거된 행동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지성의 존재구조 파악이 윤리적 행동의 기초인데, 지성이 존재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것은 곧 사물이 그 자체의 사물성과 “입”의 관계속에 바로 나타남을 지각하는 것이 된다. Plato에서는 지각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 비존재라는 것의 조화속에 있음을 지각하는데서 나온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사물의 존재가 단순한 비존재와의 조화 속에서가 아닌, 그 사물의 사물성까지 포함해서 그 사물의 정확한 위치에 있음을 지각하는데서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중용(中庸)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사물의 사물성의 정도가 바로 파악되는 것인데 그 사물성을 바로 파악하는데서 나오는 즉 적당한 내용성을 지니는, 구체성을 지니는 행동이 바로 그 중용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런 행위가 행복과 즐거움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이런 행위가 훈련에 의해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을 덕(Virtue)이라고 부르게 된다. 인간이 매사의 행위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얻어진 습관인 덕은 가장 그 기본에 있어서 公義(Justile)의 형태를 지니는데 이것은 매사를 그 사물의 바른 위치에서 두고 취급하는 덕이라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軍士들에게 있어서는 건박한 상황속에서 용감성(Bravery)으로 나타나며, 덜 건박한 상황속에서는 영예(Honor)로 나타나며,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건박한 상황속에서는 절제(Temperance), 덜 건박한 상황에서는 부지(Wealth)로 나타난다. 이들 모두는, 군인에게 있어서나 시민에게 있어서나, 건박할 때는 건박한대로 존재 구조의 근거위에서 또는 덜 건박할 때는 덜 건박한대로 존재구조의 바른 파악에 따라 중용적인 행동을 습관화한 것일 뿐이다.

Ⅲ.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윤리적인 것은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형이상학이 윤리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로마교의 도덕신학 역시 형이상학을 윤리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같이 희랍철학적인 전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신학은 이상에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에서의 덕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소위 신학적인 덕이라고 할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첨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신학은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어떻게 하든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사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행복이 형이상학적인 존재구조의 올바른 파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지속적인 즐거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인간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올바른 기독교 윤리와는 다른 것이며 천주교의 도덕신학이 형이상학적인 존재 구조를 신적인 법칙으로 보는 듯한 입장은 성경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랍철학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진지하게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윤리적인 태도라고 하겠다.